

할리우드 영화를 읽는 비판적 안목

「마이너리티 헬리웃」

우리는 늘상 할리우드식이라고 별칭되는 미국 영화를 비난한다. 짜릿한 쾌감, 통쾌한 역전 등등. 분명 영화관을 나오면 마치 기껏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저장하지 않아 깨끗이 날아가버리는 자료와 같이 감상이라고 할 것 까지도 없이 그저 “그 영화 참 시원했다” 이 한마디로 기억되는 그 허무함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는 자주 의식있는 영화팬들의 도마위에 오르곤 한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영화관 상영프로그램의 주종은 할리우드영화이고 관객도 할리우드영화에 몰리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 ‘오락성’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할리우드영화의 늪에서 한국관객이 헤어지지 못하는 원인은 무자르듯 딱 끊을 수 없는 중독성에 있다. 그 중독성의 성분은 무엇인가. 해독제를 제조하기 위해서 우선 그 성분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비판없는 미국영화 추종대열에서 한걸음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마이너리티의 헬리웃」(한울)은 우리에게 왜 할리우드영화가 흥분 내지는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을 ‘민족이라는 키워드’로 조목조목 밝혀주는 날카로운 해부칼 역할을 한다. 물론 비판을 받아들일 만한 체내단련만 되었다면 말이다.

기병대장교와 인디언과의 우정을 감동깊게 그린 ‘늑대와 춤을’에서 관객은 여러번 속는다. 이 부족 저 부족의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매단 인디언의 폼나는 모습에 이유없이 반해 버리는 것이, 문명을 밝혔지만 되레 침입자로 등장하는 포니족의 전사의 눈부신 최후를 남아의 가슴에 인상깊게 새기는 것이 제대로 된 감상법일 수도 있지만, 특히 기병대 척후병으로도 등장하는 포니족의 취급방식에는 “미국의 힘에 마지막까지 저항한 자는 강력한 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미국의 힘에 기대어 굴종하는 자는 경멸한다”는 미국 일반 대중의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

‘뚝바로 살아라’의 감독 스파이크 리에 대한 비판은 흑인에게서 나오고 있다. 흑인이면서 확고한 지위에 오른 리감독의 작품은 슬럼가를 그려도 시각은 슬럼가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글피버’가 그런 인종간의 남녀관계는 스트리트킴에에게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등등...

물론 이 책의 부제가 말해주듯이 영화에 등장하는 소수민족을 통해 미국사회사를 중점적

으로 관찰했다. 경찰의 장례식에 왜 아일랜드 민속악기인 백파이프가 등장하는지, 남부의 여인들은 남성의 억압과 착취의 노예로 지내야 했는지, 하고 많은 민족 중에 갱의 이름은 왜 항상 이탈리아계인가, 할리우드사장들은 앵글로색슨이 아니고 유태계인가 등등. 흔히 할리우드영화를 보면서 갖는 의문을 풀어주고 호기심에 대한 해답을 제공, 영화를 한층 재미있게 보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관객을 끌기 위해서라면 사실마저도 주저없이 왜곡하는 그들의 상업논리 즉 ‘할리우드 방정식’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키우는 데에 더 읽는 의의가 있다.

강정숙

인천시 북구 산곡동 현대APT 306동 1406호

「이기적 유전자」

미약하나마 생물학을 가까이하는 독자로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우선 중요시하는 것은 인간도 동물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고 파악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동물로 보고 파악하면 그만큼 쉽고 또한 세밀한 관찰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독자에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책 제목의 특이함과 함께 그 동안 의문을 품어왔던 것들에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는 것이다. 부연하면 인간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개체가 아닌 이기적인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유전자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개체라는 것이다.

그 유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동물학자인 저자는 우리들이 그 동안 대중 알았던 사실들에 이 새로운 학설을 주입함으로써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다. 저자는 동물들의 개체수 조절 방법, 가족계획, 번식 및 예측, 경쟁, 하백제, 순위제, 교미, 성(Sex), 성 전략, 공격, 방어, 기생, 공생, 노화이론, 복수, 생존술, 사회적 동물, 이기주의, 이타주의, 일부다처제 등에 수많은 동물들을 등장시켜 그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지금과 다른

세계에 도달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박언진

종로구 소격동 34-2

「풋사랑」

압구정동의 어느 시인은 조금 냉소적이고 경박한 어조로,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성적이고 애정 어린 눈길로, “풋, 사랑입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조금은 완고하고 경직된 자세로, 그만큼 진정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때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압구정동 시인의 “경쾌하면서도 진지한 시적 탐구의 애정”을 무시하는 “삭제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90년대의 새로운 문화를 모색하려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과거에 대한 대책없는 회한의 눈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진지한 믿음의 실천을 위해선, 80년대의 역사적, 사회적 여정을 냉철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90년대에 새롭게 나타난 문화풍속도를 진지하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리와 시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 김영현의 풋풋한 첫장편소설 「풋사랑」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벼움과 진지함 사이를 오갔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행복한 체험을 맛보기도 했다. 문득 이 소설은, 황순원의 「소나기」와 차주옥의 「함께 가자 우리」를 잘 버무려 놓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데, 작가는 80년대의 거대한 군사정권과 정면으로 맞서는 대학생 “최영민”을 주인공으로 선택하지 않고 그 시대의 간접적인 희생자이자 그 체제에 편입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재수생 “문경식”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80년대에 대한 “반성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재수생들의 풋사랑과 운동권 대학생들의 만남, 이 소설에서 전혀 신뢰적이지 않은 까닭은, 전편에 걸쳐 팽팽하게 지속된 진정성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진정성에는 작가의 축축한 열정이 배어있다. 진정한 사랑과 기다림, 이러한 여성적에는 80년대를 따듯한 시선으로 쓰다듬게 하는 힘이 있다.

나는 이 소설을 아무 곳에서나 이리저리 서성이며 읽었다. 그리고 그 서성임의 끝에서

부드러운 충격의 울림을 느꼈다. 결코 쉽게 씌어지지 않았을 그 구절은, 그러니까 “고통 없는 사랑이란 없는 법. 진실한 사랑은 그리움에 의해서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 비록 그게 풋사랑에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라는 그의 고백은 나의 서성임을 복돋워 준다.

김 범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755 삼성아파트 17동 1501호

「하트 비즈니스」

머칠동안 짧잠이 읽은 책을 덮는 순간의 느낌은 책의 제각기의 색이 다른 만큼 다르다. 기대하지도 않고 여유로이 읽은 책에서 오랜만에 진지하게 친구와 만난듯한 느낌을 갖기도 하고, 책의 무게만큼든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일종의 배신감도 가끔은 경험한다. 특히나 요란하게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책인데 투자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다면 얼마동안은 책 자체에 대해 멀어지게 만드는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평소,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후 읽기 전의 나와 뭔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 유익한 책읽기라고 생각해왔다. 한 권의 책이 주는 메시지를 단 몇 개만이라도 내 것으로 만든다면 투자는 몇 배로 “뺨뺨기”하여 그 가치를 되돌려 받는 것이니 말이다.

일반 경영서, 교양서 정도로 분류될 법한 「하트 비즈니스」는 좀 특별한 책이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수궁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획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했다.

“인간의 사고를 혁신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말을 소설 「개미」와 「하트 비즈니스」는 인간의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게도 하고 상상력을 자극시키기도 한다. 더이상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사고의 토대를 세우고 그것에 개인의 상상력을 더할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사뭇 다르리라.

그렇다. 「하트 비즈니스」는 그 기본적인 사고의 토대를 세우는 데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더불어 어떻게 상상력을 키울 것인가를 귀띔해주는 것이다. 하트 비즈니스! 사실 막연한 소리같다. 좀더 쉽게 말하면, 하나의 비즈니스를 구상할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데 기본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

복추구에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로써 이윤은 뒤따라오게 만드는 것. 마음이 없는 돈벌기는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사회전체가 "마음"이 부재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친절한 병원, 겉도는 형식치레인 관혼상제, 시설만 훌륭하고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는 "하트 비즈니스"이념이 빠진 리조트 시설, 인간의 통과의례인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차원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사고를 전환할 것을 제시하는 것, 유치원과 양로원을 합친 유료원을 만들자는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들... 사실 이처럼 즐거움을 요약하기란 애당초 틀린 일이다.

현대인이 TV를 비롯한 영상매체를 통해 공간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21세기는 종교의 시대인데 이제 종교도 마케팅이 요청된다는 과격성, 미술에는 백미술과 흑미술이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 또 찰리 채플린이 이 시대의 백미술사였다는 것과 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히틀러가 다름아닌 흑미술사였다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지난 과거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갔던 일들. 그리고 현대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확실히 파악하지 못해 그 개념을 몰랐던 것.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의 구상까지, 철학·종교·문학·예술 분야의 해박한 지식 세계를 넘나들면서 하트 비즈니스 개념의 진정한 뜻을 이해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하트 비즈니스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자신 것으로 만들었을 때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저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트 비즈니스 이념을 가진 사람이 하나 둘... 30, 70... 늘어나 어떤 극지점에 도달할 때, 그 큰 사고의 물결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용하여 사회전체가 하트 비즈니스 이념을 만들어 하트피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최문희

관악구 봉천6동 1690-99

「들」

윤정모의 소설, 「들」은 단재 선생의 민족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한길사에서 제정환 제7회 단재상에 문학부문 수상작의 영광을 안았다.

작가의 수상소감 가운데 중학교시절을 열등생으로 회상하는 부분을 읽고, 문학의 첫시작은 어려운 일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글로서 달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고삐」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님」 등 그녀의 작품중에서도 탁월하게 빛나는 수작이 소설 「들」이다.

제목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 달리 이 글을 단순히 농촌소설로 볼 수 없는 것은 그안에 숨어있는 진실된 이념때문이다. 풋풋한 인간미와 해학적인 면 뒤엔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70년대의 달콤한 속임수를 지나 80년대 우리 농촌의 현실은 정부의 수입농산물에 의한 상실과 한숨의 날이였다.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들녘을 바라보아도 농민들에게 가을걷이를 하자마자 그야말로 다 잃어버려야 하는 아픔만이 있었다.

히틀러정권이 모든 나찌스 반대파나 유대인의 학살을 자행하여 국민을 공포속으로 몰아넣었듯이 우리도 어수선한 소용돌이속에서 그런 절망을 맞보아야 했다.

이글은 순박하지만 적극적인 농민들의 모습과 그들의 농민운동을 보여준다.

악조건 속에서도 인간의 정신은 불멸하고 삶은 긍정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띤 소설에서 느끼는 지나친 관념과 사변적인 면을 이 소설에선 새 동행자와 영식 그리고 바보 호야가 보여주는 해학으로 지루하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이 소설을 난 지순한 문학이라고 평하고 싶다.

어느 시인이 작가 윤정모를 사내 열명도 못

당하는 여걸로 표현했듯이 이 소설 여기저기에는 그야말로 진지하게 농촌의 현실을 바라본 흔적이 있다.

자연은 인간의 어리석은 싸움을 보며 애초부터 가장 많은 복을 타고난 인간이 그것을 제대로 쓰지않고 엉덩이에 뿔만 키우다가 탕진해버린 거라고 한숨을 토해낸다.

천지만물의 지혜를 끌어당겨 이치를 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라져서 맨날 싸움 궁리만 하고 있다고 자연은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김선경

대전직할시 서구 복수동 계룡APT 4동 806호

SE OULE DITORIALDE SIGNSCHOOLSE OULE DITORIALDE SIGNSCHOOLS E OULE DITORIALDE SIGNSCHOOLSE OULE DITORI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한국출판학회추천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지정교육기관
서울편집학스쿨 문의(代) 672-1841 · 2 FAX · 671-8317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방향 100미터

편집 · 취재 기자 교육생 모집

- 국내 최초의 편집교육기관이 갖는 의미**
- 최첨단 전자출판(DTP) 교육을 이룩해냈습니다.
 - 전통이 깊은 만큼 교육이 알차습니다.
 - 교육시설 / 컴퓨터 편집실(3개소) · 잡지사보편집실 · 단행본 학습지편집실 / DTP실습실
 - 전통이 깊은 만큼 취업관리가 체계적입니다.
 - 취업률 96%에 대한 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취업 연계 출판 · 잡지사의 확보도 깊고 넓습니다.
 - 문의 즉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현직인을 위한 D.T.P교육

- 과정 : DTP(컴퓨터편집)
- 기간 : 2개월(매킨토시 실무교육)
- 대상 : 현직출판편집자, 편집학원이수자

편집 · 취재기자로 첫발을!



성공적인 첫 출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문 · 잡지 · 사보 · 출판 · DTP

편집 · 취재 요원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곧 서울편집으로 전화하십시오

- 모든 취업관리가 전산화 되어 있어 신속한 인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 본원 교육은 현장적용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채용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원 교육은 성실과 책임감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 어느 연고를 통해 입사한 요원보다 성실합니다.
- 본원 발행 취업속보(취업 예정자 명단)를 받아 보지 못한 업체께서는 연락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본원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관계자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E OULE DITORIALDE SIGNSCHOOLSE OULE

ALDE SIGNSCHOOLSE OULE DITORIALDE SIGNSCHOOLS

DITORIALDE SIGNSCHOOLSE OULE DITORIALDE SIGNSCHOOLSE OULE DI TORIALDE SIGNSCHOOLSE OULE DITORIALDE SIGNSCHOOLSE